

디지털 시대, ‘기술적 상상’을 통해 형상화된 한글의 공공 - 소통 양상과 가치

윤인선*

【 차 례 】

- I. 들어가는 말
- II. ‘텍스트 코드’를 통해 나타나는 한글의 공공-소통 양상
- III. ‘기술적 상상’을 통한 한글의 형상화와 의미 구성
- III. 디지털 시대의 한글, 의미의 문자에서 놀이의 문자로

국문초록

본고는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가 제안한 ‘기술적 상상’을 통해 형상화되는 한글의 소통에 관해 연구한다. 이를 위해 공공 공간에서 ‘텍스트 코드’를 활용한 한글이 소통되는 양상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것이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코드로 형상화되는 모습에 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의미 전달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 한글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문자-도상이 구분된 체계로 상호작용하는 한글의 공공 소통 유형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 형상을 통한 이미지화된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또한 문자-지표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대화적 공공 소통 유형의 경우에는, 공간 지표가 지니고 있는 고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 형상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자 참여 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한글은 단순히 의미 전달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이미지화된 텍스트를 통해 문자성에 바탕으로 둔 예술적 가치를, 수신자 참여 지표를 통해 새로운 메시지의 전달이 아닌 조합과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실용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한글이 공공의 공간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소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미지의 해석과 수신자 참여를 통한 의미 생성의 과정에서 놀이의 문자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열쇠어 : 한글, 빌렘 플루서, 기술적 상상, 문자-도상, 문자-지표, 대화적 소통, 담론적 소통, 이미지화된 텍스트, 수신자의 참여.

I. 들어가는 말

본고는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가 제안한 ‘기술적 상상’을 통해 형상화되는 한글의 소통에 관해 연구한다. 이를 위해 공공 공간에서 ‘텍스트 코드’를 활용한 한글이 소통되는 양상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기술적 코드로 형상화되는 모습에 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의미 전달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 한글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계획적이고 독창적인 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글에 대한 우수성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어왔다. 한글은 사람 발성 기관을 본떠 만들어져 ‘조형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실용성’을 지닌다. 이러한 문자로서의 우수성은 유네스코에서는 매년 문맹 퇴치에 공헌한 사람에게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주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글의 가치는 문자로서의 의사소통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나 대중들의 일상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

을 수 있다. 먼저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지니고 있는 조형성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림 1] 한글의 조형성을 활용한 콘텐츠

[그림 1]에 활용된 자음과 모음은 한글의 문법체계를 통해 해석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지닌 조형성의 결합을 통해 문자가 아닌 새로운 이미지-대상으로 표현된다. 이를 통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지니고 있는 조형성이 의미 전달이라는 실용성을 넘어서, 거북선과 공룡을 비롯한 다양한 도상을 표현하기 적합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의미전달이라는 한글의 문자적 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2] 한글의 무자성을 활용한 콘텐츠

[그림 2]는 ‘아름다움’ ‘무너진다’ ‘엉엉’과 같은 한글의 문자적 의미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듯한 조형적 구성을 통해 표현한다. 이를 통해 한글이 지닌 의미를 문자를 통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형상화시킨다. 즉 시각적 형상 속에서 한글의 문자성이 나타나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의 문자성을 활용한 콘텐츠는 다른 언어와의 결합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3] 다른 문자와 한글의 문자성의 결합을 통한 콘텐츠

[그림 3]은 영어 알파벳에 ‘ㅅ’ ‘ㅍ’ ‘ㄹ’과 같은 한글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켜 ‘서울’ ‘뉴욕’ ‘파리’와 같은 의미를 형상화한다. 이 과정에서 한글은 이질적인 알파벳과도 조화로운 구성을 보이면서 문자로서의 의미 작용에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알파벳으로 구성된 도시명과는 다른 조형적 효과까지 일으킨다.

이처럼 그동안 한글을 활용한 콘텐츠들은 대부분이 의미전달을 위한 문자성을 바탕으로 하는 실용적 가치와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지니고 있는 조형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가치의 결합을 통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글의 조형성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중심으

로 의미를 전달하려는 콘텐츠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해야하는 한글의 ‘공공-소통’ 상황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공공-소통 상황 속에서 한글은 정보 전달이라는 문자 본래의 기능에서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소통되는 문자는 사회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야 한다. 더불어 공간 자체의 시각적 환경을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문자의 ‘실용적-예술적 기능’을 수행한다.¹³⁾ 다시 말해, 공공-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한글은 의미전달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간에 관한 광범위한 시각 환경을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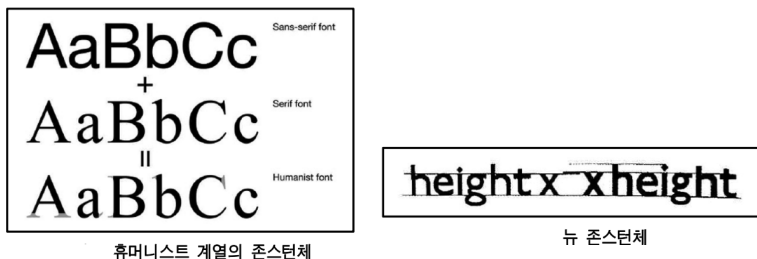
그동안에는 국내외에서는 문자의 조형성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 통일된 공간 이미지와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는 아래의 ‘존스틴체’와 같은 서체 개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⁴⁾

본고에서는 공공 공간의 문자 소통에 있어서 그동안에 나타났던 서체 개발과 같은 관점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양상에 관한 논의를 확장시켜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인간 사회와 기술의 발달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나타나는 소통 모델의 전개 과정과 기술적 상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의 “코무니콜로지(Kommunikologie)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13) 석중휘·조순호, 「대중교통을 위한 공공문자 정보인지성에 관한 사례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28,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1, 39-41쪽.

14) 사회적 문화적 상징체로서 공공 공간에서 소통되는 문자의 서체 개발의 모습은 이미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런던 교통국의 ‘존스틴 산스’, 독일의 ‘DIN’을 들 수 있다.

김상욱, 「공공문자의 사회문화적 상징체로서의 역할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Vol.10 No.3, 한국기초조형학회, 2009, 57-65쪽.



[그림 4] 해외 공공문자 서체 개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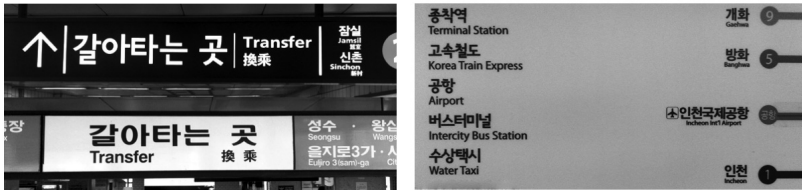
Ⅱ. ‘텍스트 코드’를 통해 나타나는 한글의 공공-소통 양상

플루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코드에 따라서 이미지 코드가 중심이 되는 선사시대, 텍스트 코드가 중심이 되는 역사시대, 디지털을 비롯한 기술적 코드가 중심이 되는 기술시대로 구분하고 그 작용 원리에 관해 설명한다.¹⁵⁾ 그동안 공공-소통되어 나타나는 한글은 기술적 형상보다는 역사시대의 코드인 텍스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선 텍스트 코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한글의 공공 소통 양상에 관해 살펴보겠다.

텍스트 코드를 통해 공공 공간에서 나타나는 문자는 특정한 메시지의 의미를 다수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 과정은 문자를 비롯한 매체가 인간 사회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소통하는 양상에 관한 플루서의 논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는 정보의 생산과 소통을 ‘담론적 유형’과 ‘대화적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때 전자를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분배되는 정보의 소통을 방해하는 엔트로피를 낮추는 소통 양상으로, 후자를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합성하고 교환해 나가는 소통 양상으로 설명한다.¹⁶⁾

15) 빌렘 플루서, 『코뮤니콜로가-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114-168쪽 참조.

이러한 플루서의 논의에 따라 우선 공공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한글의 담론적 소통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은 문자적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기 위해 뚜렷하게 보이는 형태와 문자의 의미 이외의 정보를 최소화시키는 구성을 보인다.



[그림 5] 담론적 소통 유형을 보이는 공공 공간에 나타나는 한글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담론적 소통 유형을 보이며 공공 공간에 나타나는 한글은 명사형의 간결한 표현과 뚜렷하고 커다란 문자 형태, 그리고 명암대비가 분명한 단순한 색조 등을 통해 의미 전달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문자의 지시적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한글의 공공-소통 양상은 피할 수 없는 몇몇 문제들의 연쇄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문해력의 문제이다. 공공 공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한글의 문법 체계에 익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공공 공간에 나타나는 한글은 아무런 의미 없는 엔트로피의 문자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영어와 한자와 같은 추가적인 문자를 배치한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두 가지 문제를 추가적으로 일으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시각적 조잡함이다. 즉 한글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문자 이외의 정보를 최소화하고 있는데, 한글과 함께 배치된 영어나 한자는 그 문자가 지닌 추가적인 정보성으로 인해 이러한 의도를 방해한다. 또한 비록 영어와 한자 문화권 사람들이 주를 이루지만, 그이

16) 위의 책, 19-37쪽 참조.

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다소 자신들에게 배제의 모습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자로서 한글 본연의 기능인 의미 소통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공간의 조형적 미관을 방해한다. 국내에서도 해외와 같이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고 조형적 미관을 위해 서체를 개발하고 있다.¹⁷⁾ 하지만 다양한 언어를 하나의 공간에 배치하게 되면서, 새롭게 개발한 서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안내 간판 자체의 조형적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 지닌 우수한 조형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담론적 유형의 맥락에서 공공-소통되는 한글이 지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자 외적인 요소인 이미지와 같은 도상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한글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픽토그램과 같은 도상을 활용하여 문해력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그림 6] 픽토그램을 활용한 한글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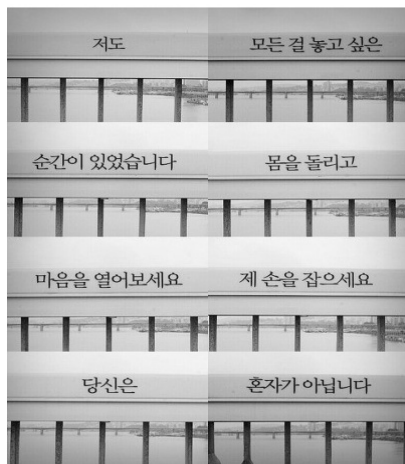
17) 대표적으로 그림과 같은 서울시 전용 서체를 들 수 있다.



[그림 6]의 경우 문자-도상을 활용한 한글의 담론적 소통 유형의 한 사례이다. 이들은 한글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문해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글과 픽토그램을 같이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안내판이 복잡한 느낌을 주며, 동시에 한글에 적용된 서체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이처럼 ‘문자-도상’을 활용한 한글의 담론적 소통 유형에 나타나는 도상과 문자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의미를 중계 혹은 고정시켜주는(anchoring) 역할을 한다.¹⁸⁾ 이를 통해 공공-소통되는 한글의 수신자들에게 정보 전달에 관한 엔트로피를 최소화시켜 ‘축어적 의미’를 전달하려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문자 소통에서 정보 획득을 방해하는 엔트로피를 높이는 모순이 나타나곤 한다.

다음으로 한글의 대화적 소통 유형에 관해 생각해보겠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한글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가 문자가 놓인 공간과 같은 지표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7] 지표적 요소를 활용하는 한글의 소통 양상

18) 토마스 웨스트, 『글자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미지로 창조하는 사람』, 김성훈 역, 지식 갤러리, 2009, 50-54쪽 참조. R. Barthe, ‘The Rhetoric Of The Image’, *Image-Music-Text*, New York: Hill and Wang, 1977, p.40.

[그림 7]은 마포대교에 형성된 한글의 공공-소통 양상이다. 마포대교의 난간에는 “저도 모든 걸 놓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몸을 돌리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제 손을 잡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쓰여져 있다. 하지만 이 문구는 축어적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마포대교 난간이라는 지표적 요소와 상호작용하며 ‘자살하지 마세요.’라는 2차적 의미를 생성하는 한글의 공공-소통 양상이다. 다시 말해, 바르트가 제안한 ‘신화 발생 도식’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의 1차적 의미가 아닌,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살하지 말라는 2차적 의미가 ‘추론되는’ 소통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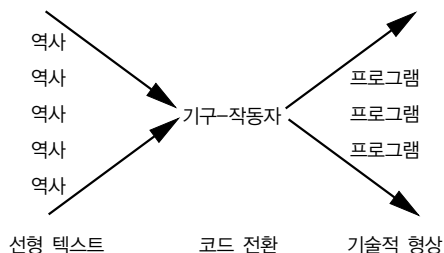
이때 마포대교는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서의 다리가 아닌, 자살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적 자질을 바탕으로 한글 텍스트의 의미가 ‘추론되는’ 과정에서 공공-소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은 특정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는 수신자들에게는 정보 전달 및 생산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공공 공간에 형상화된 한글이 오히려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 혹은 주변 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이처럼 텍스트 코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한글의 공공-소통 양상에서는 문자 외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다시 말해, 담론적 소통 유형의 경우에는 정보 전달의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 활용되는 도상적 요인이, 대화적 소통 유형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미를 추론하도록 상호작용하는 지표적 요인이 한글의 공공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즉 한글의 소통을 통해 담보하려는 공공성이 문자 자체가 아닌 문자 외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Ⅲ. ‘기술적 상상’을 통한 한글의 형상화와 의미 구성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텍스트 코드를 활용하는 한글의 공공 소통 양상에서 나타나는 문자 외적 요소에 의존하는 모습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글이 기술적 코드의 활용하여 나타나는 모습에 주목할 것이다.

플루서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은 선형 코드에 의한 역사의식에 무의미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로 인해 텍스트의 세계에서 벗어나,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기술적 형상’의 시대로 접어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기술적 형상이란 텍스트를 넘어서 새로운 평면 코드(그림)의 세계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평면 코드는 장면의 모사가 아닌 텍스트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다.¹⁹⁾ 따라서 기술적 형상은 사진,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등 기구를 이용해, 역사가 변형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플루서는 이러한 모습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설명한다.²⁰⁾



[그림 8] 역사에서 프로그램으로

19) 빌렘 플루서, 『괴상성 예찬: 매체 현상학을 위하여』,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136-152쪽 참조.

20) 빌렘 플루서, 『코뮤니콜로가-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164쪽.

플루서에 따르면 기술적 형상화의 시대는 선형적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텍스트가 기구-작동자에 의해 디지털 코드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기술 시대의 코드를 통해 만들어지는 기술적 형상들에게 이미지는 ‘텍스트에서 나온 이미지’가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텍스트와 이미지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적 형상을 통한 문자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닌,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의미를 떠올리고 체험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형상을 해석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기술적 상상이다.²¹⁾

플루서의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한글의 공공 소통 양상에 관해 생각해 볼 것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한글의 공공-소통을 가능하게 했던 문자 외적 요소(도상과 지표)가 기술적 형상을 통해/으로 변환되는 과정에 주목할 것이다.

먼저 문자-도상을 활용한 한글의 담론적 공공 소통 유형의 경우, 기존 텍스트 시대에는 문자와 도상이 구분된 체계로 존재하였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선형적으로 구성된 요소들이 점(點)으로 붕괴되어 유동적으로 재조합되는 과정을 통해 ‘이미지화된 텍스트’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한글의 수용자들은 이러한 이미지들을 텍스트의 상징으로 해독하는 과정에서 문자의 지시적 의미를 인지적으로 추론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대표적으로 문자 미디어 파사드나,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은 2012년 서울 스퀘어에 전시되었던 한글 미디어 파사드의 일부이다. 디지털 코드를 통해 ‘통’이라는 어휘를 글자가 마치 물방울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시 튕겨 오르는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이러한 형상은 ‘통’이라는 어휘가 지니고 있는 개념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다시 튕겨 오르는’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기술적 상상의 과정을

21) 플루서에 따르면 기술적 상상은 개념에서 그림을 만든 후 그러한 그림들을 개념의 상징으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위의 책, 226쪽.

통해 나타난 것이다. 파사드의 수용자들은 이러한 이미지를 다시 ‘통’이라는 개념의 상징으로 해독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통’이라는 어휘의 문자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디지털 코드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 인지적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림 9] 한글 미디어 파사드, 이미지화된 어휘

[그림 10]은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글 디지털 사이니지이다. 앞서 살펴본 [그림 9]에서와 마찬가지로 ‘엔트맨’이라는 문자를 앞으로 나아가는 듯한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한다. 이러한 형상을 통해 비록 ‘엔트맨’의 문자적 의미를 모를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빠른 이미지가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술적 형상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특정한 의미를 지닌 개념의 상징으로 해석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10] 한글 미디어 파사드, 이미지화된 어휘

기술적 상상을 통해 나타나는 문자-도상을 활용한 한글의 담론적 공공 소통 유형의 경우 이미지와 텍스트의 구분이 사라진 ‘이미지화된 어휘’를 활용한다. 이때 나타나는 문자와 도상은 분리된 상태로 서로의 의미를 보완해주는 체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둘은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며 단일한 의미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문자의 의미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술적 상상은 문자와 도상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하며,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서 한글의 의미를 공공-소통하게 된다.

이러한 소통 양상은 문자와 이미지를 하나의 체계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한글의 조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한글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조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 볼만하다. 이를 통해 한글에 대한 문해력이 없는 외국인들에게도 의미를 인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텍스트 시대의 문자-도상을 활용한 한글이 지닌 문제점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텍스트 시대의 문자-지표를 활용한 한글의 대화적 소통 유형의 경우, 정보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문자가 놓여 있는 공간의 의미가 전제되었다. 따라서 그것을 알고 있는 수용자만이 의미를 추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적 형상에 관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적 지표가 ‘수신자 참여적 지표’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소통하는 한글은 공간의 의미가 아닌 수신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미디어 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은 강남역 인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폴에 관한 장면이다. 강남역 인근에 설치된 미디어 폴은 다양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에 존재하는 안내판으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미디어 폴 역시 앞 장에서 살펴본 문자-지표를 활용한 한글과 같이 인접한 공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신자에게 한글의 의미를 전

달한다.²²⁾



[그림 11] 강남역 미디어 폴

하지만 미디어 폴은 특정 공간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인 메시지로 전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디어 폴의 수용자들의 프로그램된 한글 콘텐츠에 대한 참여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보를 ‘조합한다.’ 다시 말해, 미디어 폴을 통해 전달되는 한글의 의미는 그것이 놓인 공간을 통해 추론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조합의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문자-지표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던 기본 대화적 소통 유형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기존 텍스트 코드를 활용하는 한글의 공공 소통 양상에서 공간의 지표적 의미는 고정된 것이고, 한글로 전달되는 정보와 의미는 그것과의 영향 관계를 통해 형성되었다. 하지만 기술적 코드를 통해 형상화된 한글의 경우 고정된 공간 지표가 아닌 ‘수신자 참여적 지표’가 부각된다. 따라서 강남역 미디어 폴의 경우 강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아닌, 수신자의 참여에 의해 새롭게 조합된 강남 교통, 강남 편의점과 같은 정보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처럼 기술적 상상을 통해 나타나는 문자-지표를 활용한 한글의 대화적 공공 소통 유형의 경우, 한글이 제공하는 정보는 ‘수신자의 참여’를

22) 가령 강남역에 존재하는 미디어 폴에는 사진에서와 같은 ‘강남 인사이드’가 존재한다. 즉 미디어 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간에 연루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통해 완성된다. 비록 미디어 폴에서는 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프로그램화된 정보에 대한 수신자의 조합을 통해 의미가 결정된다. 따라서 장소의 의미가 텍스트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의 과정을 통해 한글이 대화적 소통 유형의 맥락에서 새로운 정보를 조합하며 공공 공간에서 형상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 양상은 한글이 제공하는 정보를 해석하는데 지표가 아닌, 수신자의 참여를 연루시킨다는 점에서 고정된 장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앞서 살펴본 텍스트 시대의 문자-지표를 활용한 한글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적 상상을 통해 형상화되는 한글은 공공 공간에서 일어나는 의미 소통에 있어 한글 자체에 주목할 수 있게 해준다. 다시 말해, 텍스트 코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한글의 공공-소통 양상에서는 문자 외적인 요소가 중요시되었다면, 본 장에서 논의한 기술적 상상을 통한 소통 양상은 이미지화된 어휘를 해석하고, 지표가 아닌 수신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한글이 지닌 조형성과 의미에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V. 디지털 시대의 한글, 의미의 문자에서 놀이의 문자로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한글이 공공-소통되는 양상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플루서가 제안한 시대구분을 중심으로 텍스트 코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한글의 공공 소통 양상과 한계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 형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한글의 공공 소통 양상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문자-도상이 구분된 체계로 상호작용하는 한글의 공공 소통 유형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기술적 형상을 통한 이미지화된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또한 문자-지표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대화적 공공 소통 유형의 경우에는, 공간 지표가 지니고 있는 고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적 형상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자 참여 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한글은 단순히 의미 전달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이미지화된 텍스트를 통해 문자성에 바탕으로 둔 예술적 가치를, 수신자 참여 지표를 통해 새로운 메시지의 전달이 아닌 조합과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실용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한글이 공공의 공간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소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미지의 해석과 수신자 참여를 통한 의미 생성의 과정에서 놀이의 문자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상욱, 「공공문자의 사회문화적 상징체로서의 역할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Vol.10 No.3, 한국기초조형학회, 2009.
- 김성재, 『플루서, 미디어 현상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김성호 · 심희정, 「빌렘 플루서와 미디어 문화 - ‘기술적 형상’을 중심으로」, 『예술과 미디어』 Vol.5 No.1, 한국영상미디어협회, 2006.
- 석중휘 · 조순호, 「대중교통을 위한 공공문자 정보인지성에 관한 사례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28,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1.
- 빌렘 플루서,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윤종석 역, 엑스북, 2015.
- _____, 『코뮤니콜로기-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_____, 『피상성 예찬: 매체 현상학을 위하여』,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토마스 웨스트, 『글자로만 생각하는 사람, 이미지로 창조하는 사람』, 김성훈 역, 지식갤러리, 2009.
- R. Barthe, ‘The Rhetoric Of The Image’, *Image-Music-Text*, New York: Hill and Wang, 1977.

The digital age, public-communication and techno-imagination of Hangeul

Yoon, In-Sun

This thesis study about public-communication and techno-imagination of Hangeul suggested by Vilém Flusser. For this, we analysis the communication of Hangeul using ‘text-code’ in public-space and the figuration of Hangeul using ‘techno-code’ in new media platform of public-space. Through it, we aim to find on possible about new cultural contents of Hangeul in the digital age. So, we think about possible of Hangeul using ‘imaginational-text’ by technic-figuration and using ‘receiver participation’ by program of technic-figuration.

Through this study, we argue Hangeul has practical value by receiver participation and artistic value by imaginational-text beyond convey message. This shows on possible about ‘playing letter’ not ‘communicating letter’ by interpreting of imaginational-text and participating of receiver.

Key word : Hangeul, Vilém Flusser, techno-imagination, letter-icon, letter-index, dialogic communication, discursive communication, imaginational-text, receiver participation.

투고일 : 2016. 11. 25. / 심사일 : 2016. 11. 27. / 심사완료일 : 2016. 12. 10.